



프락

GAFL
경기외국어고등학교
Gyeonggi Academy of Foreign Languages

15호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신문 2019.02.01

발행처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기획 : 지도교사 이기찬, 부장 양제니, 이시은
취재 : 양제니, 이시은 외 11명
편집 : 양제니
주소 : 경기도 의왕시 고산로 105번길 30(고천동)
전화번호 : 031-361-0500
팩스번호 : 031-361-0598



GAFL, A World Class Institution



톡톡 튀는 매력의 뉴페이스 선생님!

교사는 처음이라서, 성하경 선생님!

우선 1학년 영어 문법을 가르치시는 성하경 선생님! S 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셨고, 첫 직장이 경기외고라고 합니다!



Q1. 첫 교직생활을 시작한 소감: 두근두근

A. 학창시절엔 선생님이 될 거라곤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누구를 가르치는 일이 재미있다고 생각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언어를 배우는 일에 대해 학부생 때 고민하게 됐고, 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우연히 작년에 경기외고 방과후 학교 교사로 일하게 됐어요. ASG 수업 후 퇴근길에 '내가 이런 학교에서 일하면 어떤 느낌일까?'하고 생각은 해봤던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 됐네요. 아직도 제가 누군가의 "선생님"이라고 하면 두근거려요. 내성적인 성격이라 남들 앞에서 말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용기,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 시험 직후 폭풍처럼 쏟아지는 학생들의 아우성 등 저를 두근거리게 하는 게 많아요.

Q2. 문법수업에서의 학습지/프레젠테이션, 특별한 방식: 동땅동땅

A. 특별한 방식은 없어요. 영문법에 대해 언어인 지학적 관점에서 쓴 글이나 시중의 문법서, 문제집, 참고서 등을 합쳐 동땅동땅 만든 수업자료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영문법 수업을 싫어했는데, 나중에 내가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생각해본다면, '영어와 한국어는 다른 언어인데, 의미는 이해 못하고 원치만 외우려고 해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말에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 더 효과적인 말의 형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학생들과 왜 그런 문법 현상이 나타나는지 연구해 본 이론들을 나누고, 문법 문제를 풀어보면서 상황에

더 적합한 말의 형식을 찾아보는 문법 수업을 하고 싶어요. 가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흥미로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볼 때나, 문법을 이해하니 훨씬 더 재미있다고 말해줄 때 기분이 좋아요!

Q3. 비전이나 교육목표: 포롱포롱

A. 영화를 좋아해서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가끔 들어가는데,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대로"라고 적혀있는 게 인상 깊더라고요. 저도 인생 전체의 비전이나 원대한 목표 같은 건 없지만, '오늘 하루의 수업, 오늘 학생들과의 만남은 성실하게 준비하자'가 나름의 목표인 것 같아요. 교육 목표는 '전교생 수능 영어 1등급'이라고 하고 싶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수업에서 '생각과 언어적인 형식이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학생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또 학생들에게 "선생님"보다는 "좋은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학창시절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권위주의적인 선생님은 멀리하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학생들을 포롱포롱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재미있는 어른이고 싶어요.

Q4. 고등학생이었을 때 어떤 모습: 평범평범

A. 저는 친구들이랑 급식 먹으면서 수다 떨 때가 제일 행복하고, 학교 밖으로 떡볶이 먹으러 나가는 게 제일 큰 일탈이었던 학생이었죠. 1학년 때는 아무생각 없이 놀았고, 2학년 때는 중2병 같은 고2병도 있었고, 3학년 때는 입시 때문에 정신없이 보냈던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Q5. 첫사랑 이야기: 사랑의 힘

A. 한 가지에 빠지게 되면 계속 그것만 하는 성격이에요. 대학교 첫사랑이 배드민턴 준 선수급이었는데, 그 사람과 파트너 되려고 하루 7~8시간 동안 배드민턴만 치기도 했어요. 결국 배드민턴과 사랑 모두 생취했어요. 첫사랑은 떠나갔지만 요새도 배드민턴을 치는데, 머리 묶고 운동복 입고 걸어가는데 학생들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Q6.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괜찮아요

A. 제가 대단한 인생 선배도 아니고, 저보다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학교에 많으셔서 조심스럽지만,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에서 "깊게 파기 위해 넓게 파는(스피노자曰)" 경험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공부해보면, 시야가 넓어지고 들리는 말도 훨씬 많거든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을 보면,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에 따라 어떤 것을 깊이 고민하는 힘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점수 하나 하나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요. 지금 조금 깨끗해도 괜찮아요! 본인의 길을 넓게 파는 과정에서 돌맹이가 한 번 탁 걸린 거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사이드, 장재영 선생님!

다음은 2학년 '생활과 윤리', '논술' 과목을 가르치시는 장재영 선생님입니다. S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중에 있고, 특목고는 경기외고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Q1. 경기외고 윤리 교사로 일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다 오셨나요?

A. 저는 직업이 많아서 어디가서는 대학원생이라고 해요. 교육학 석사 중에 있어요. 학부생 때 윤리교육을 전공했어서, 학생들을 마주할 때 철학적 인간상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교육 심리학적으로도 학생들을 바라보고 싶어서 상담심리 쪽을 더 공부하는 중이에요. 원래 직업은 강의하러 다니는 강사이고 교육연구소 소속이에요. 주말에는 여전히 수험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 청소년 대상 입시 강의, 인문학 강의 등을 하고 다녀요.

Q2. 경기외고 신입 윤리 교사로서의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언제까지 이 학교에 있을지 모르겠어서 너무 불안해요. 여기에 오래 남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뛰어난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고, 단순한 공부(명제적 지식)가 아니라 학생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사고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경기외고라고 생각해서 왔어요. 그래서 신입 윤리교사라는 것에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뛰어난 윤리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과분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 학기가 끝났을 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이름은 다 외워서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출석부를 3개를 복사해서, 각각 수행평가, 출석, 그리고 학생들과의 에피소드를 적어요. 그 사람과의 해프닝을 기억하면 이름이 잘 기억나더라고요.

Q3. 경기외고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이색적이었던 경기외고만의 문화가 있나요?

A. 이전에 혁신학교, 신설 인문계 일반고에서도 있었는데, 특목고는 처음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기해요. 경기외고의 '교학상장'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수업을 '가르친다' 이전에 '나눈다'라고 표현해요. 학생들이 수업분위기를 주도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보다 어린 학생들이지만 그 이전에 '포마 철학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수행평가, 학생들을 위한 대회, 동아리, 심화연구 등에 대한 풍부한 지원이 특징인 것 같아요. 또 기수별 단합, 학과별 단합 등 각 집단의 특색을 이해할 때 새로웠어요. 그리고 급식이 진짜 짭!!

Q4. 선생님만의 비전이나 교육 목표, 특별한 교육방식이 있다면?

A. 학교의 기능과 본질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과거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학교 밖에도 많아요. 생각하는 힘, 즉 '생각의 식스팩'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게 참된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갖고 있는 교육철학은 경기외고의 이념과 마찬가지로 '교학상장'이어서 학생들에게 정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그럼 학생들은 그 속에서 성장하고, 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학생들의 의견을 보면서 저도 배우게 돼요.

Q5. 요새 무리에 잘 섞여 놓고, 무리 내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을 'insider', 즉 '인싸'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남다른 인싸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뭔가요?

A. 사실 저는 '인싸'라기보단 '관중'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관심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지위를 떠나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고 싶어서 더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두루두루 인간관계가 넓게 형성된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제 '인싸'라고 하는 것 같네요.

Q6. 선생님의 학창시절 모습은 어땠나요? 학생회장도 하고 여러 사회 운동도 하셨다고 들어요.

A. 인문계 일반고에 있는 무난한 학생이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외향적 성격이었어요. 선생님과 학생의 중간자, 연결 역할,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했어요. 선생님들과 같이 점심도 먹을 정도로 친했거든요. 그리고 총 학생회장을 맡기도 했어요. 유관순 열사, 조근욱 박사님 등이 선배님이셔서 학교에 대해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는데, 다른 학생들은 오래된 학교 시설과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들에 대해 뒤에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그 무렵 읽었던 책의 한 문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일류 비평가이기보다 삼류 실천가가 되어라". 학교, 사회를 바꾸고 싶다면 뒤에서 비판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실천하는 지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회장이 됐던 거고요. 학교-지역사회-대한민국까지 관심영역을 확장



하고, 제 소신을 이야기하고 학생회장까지 하니 썸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 시야가 또래에 비해 많이 넓어졌어요. 그러면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역 사회 문제, 대한민국 문제, 청소년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니, 일반적인 학생이었지만, 평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그렇다 보니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했던 그런 양날의 검이었지만 두루두루 원만하게 생활했어요.

성적이 뛰어나게 높지는 않았어요. 부모님 모두 공부 쪽은 아니셔서 "공부는 너가 스스로 해라. 어느 대학에 가든 난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닌, 공부다운 공부를 찾아서 했고 그 열망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Q7.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대학 신입생들을 보면, 2학기 시험을 칠 때쯤 매너리즘이 오는데, '대학=성공'이라고 가르쳐서 오는 것 같아요.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면 성공했다고 착각하곤 해요. 대학은 성공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공부를 대학을 위해 하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고, 대학 진학 후의 인생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많은 경험을 쌓고 시행착오를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대학 가면 해방이 아니라 무한 경쟁의 시작이니까요. 경기외고에서는 경쟁을 하기보다는 늦더라도 함께 손 잡고 결승선에 도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후는 대학교 가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경기외고의 새내기 선생님 두 분! '하경제'를 쓰시는 사랑스러운 매력덩어리 성하경 선생님과 남다른 인싸력을 갖고 계신 장재영 선생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바쁜 외중에도 인터뷰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교직생활을 계속 해나가시면서 학생들과의 좋은 관계, 학교에서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윤서영, 양세은, 이준혁 기자

새로워진 GVT를 소개합니다.

지금까지의 GVT는 학생들이 타민족과 함께 생활하고 봉사하면서 세계를 향한 큰 비전을 갖게 하는 국제봉사활동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GVT가 이번 15기를 기점으로 새롭게 변화했다. 2018학년도부터는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인재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Global Vision을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목적은 물론 떠나는 시기에도 변화가 생겼다. 여름방학에 가던 기존 GVT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1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가 끝난 후에 GVT를 떠나게 되었다.

새로 바뀐 GVT에서는 미국, 대만, 일본의 세 나라 중 한 나라를 선택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과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국가에는 공통적으로 해당 국가의 대학을 탐방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각 현지 고등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도 일괄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시간을 통해 현지 학교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며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한 인재가 되기 위한 발판을 다질 수 있었다. 교실 속 책상에 앉아 배우는 수업에서 잠시 벗어나, 바다 건너 원하는 국가에 가서 직접 배워보는 수업을 통해 글로벌한 마인드와 비전 역시 갖추 수 있는 경험이었다.

▶원예린 기자

GVT 미국 - 미국에서 찾은 글로벌 리더의 토양 아이비리그 대학교 탐방



2018 GVT에서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였던 프로그램 중 하나였을 아이비리그 대학교 탐방. 특히 IB반 학생들에게 더욱 인상 깊었던 일정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7박 9일의 일정 중 방문한 대학교는 총 4곳이었다. [YALE] 예일대학교를 가장 먼저 방문하였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 역사가 짧아 오래된 건물처럼 보이기 위해 색이 다른 벽돌과 깨진 것 같은 창문을 이용하였다. 건물에 큰 신경을 쓴 만큼 아름다운 학교 캠퍼스를 자랑한다. [HARVARD] 누구나 한 번은 이름을 들어 봤을 대학교인 만큼 차분한 분위기와 학교에 대한 재학생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더하여 존 하버드 동상의 발을 만지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 동상의 발끝을 만지며 사진을 찍는 것은 하버드에 방문했을 때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PRINCETON] 2018년 미국 종합 대학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한 프린스턴 대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한적한 동네에 위치하고 있다. 학생 수도 적어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MIT] 이과 학생들에게 꿈의 대학교라 할 수 있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는 재학생 투어 없이 학교 캠퍼스를 둘러보고 교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것이 일정이었다. 캠퍼스를 둘러보며 과거 학생들의 기발한 장난 등 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들었고, 교내식당에서는 모든 학생이 흠뻑 자유 시간을 가졌다. 미국의 유명 대학교를 방문하여 재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캠퍼스를 구경하면서 예쁜 풍경과 자유로운 분위기의 학교를 느낄 수 있었다. 대학교 탐방이 많은 학생에게 세계로 뻗어갈 '글로벌 리더'가 될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 관광 및 문화 체험



15기 학생들은 대학교 및 고등학교 탐방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시간도 가졌다. GVT 넷째 날, 경기외고 학생들은 자유의 여신상을 관람하였다.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에 승선하여 자유의 여신상과 더불어 브루클린 다리와 맨해튼의 경관을 감상하였다. 유람선 위에서 학생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기 바빴다. 또한 15기 학생들은 뉴욕에 위치해 있는 UN 본부를 방문하였다. 주변에서는 193개 회원국의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UN의 본부를 들어가는 만큼 보안 검사 과정은 아주 엄격했다. 학생들은 UN본부를 둘러볼 수 있는 UN투어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투어 중, 학생들은 실제 진행 중인 경제사회이사회 회의를 직접 참관하기도 하였다. 각각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떠나서 다양한 학생들의 눈을 뜨게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15기 학생들은 한국 문화원을 방문해 외교관과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실제 활동 중인 외교관들에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하고 외교관들은 학생들에게 답변을 해주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외교에 대해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었다.

미국 고등학교 탐방의 날



GVT를 떠난 경기외고 학생들은 여섯째 날인 10월 11일, 현지의 고등학교 South Lakes HS, Langley HS, Madison HS 이렇게 총 세 개의 학교를 탐방했다. 세 개의 학교들 중 1호차 학생들은 IB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South Lakes HS를 방문하여 현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다양한 체험을 하였다.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교실로 들어가는 길에는 'WELCOME to South Lakes GYEONGGI'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와 무궁화를 그려 넣은 학생들의 그림이 걸려 있어 따뜻한 환영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교실에 도착하자 South lakes HS의 교장 선생님께서는 파트너의 이름과 경기외고 학생의 이름을 차례대로 부른 뒤 학교의 기념품을 전달하였고 바로 경기외고 학생 대표의 연설이 이어졌다. 그리고 각자 정해진 파트너와 함께 그날의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같이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다. 모두들 처음 만나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금세 가까워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교 탐방이 모두 끝나고 경기외고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교장선생님께서는 좋은 글귀 밑에 환영의 메시지를 직접 적은 뒤 손수 접어 만든 40개의 꽃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주었고, 다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탐방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기외고 학생들에게 현지 고등학교에서의 공동 수업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며, 학생들은 이러한 뜻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꿈을 키워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박지원, 이지우, 최서현 기자

GVT 일본 - 문화와 추억의 창고가 되다.



대한민국과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지난 10월 8일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과 이기찬 선생님, 정혜윤 선생님은 일본으로 Global Vision Trip (이하 GVT)를 떠났다. 중간고사를 마치고 숨들릴 새도 없이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공항에 도착하는 친구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를 않았다. 올해 15기부터는 GVT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해외봉사에 치중했던 이전 GVT와는 다르게 이번 GVT의 핵심은 각자의 Global Vision을 찾는 것으로 해외 대학교, 고등학교와의 교류와 탐방 등이 중요한 일정이었다.

이번 여행에서는 동지사 대학교(도시사대학교), 츠크바 대학교 부설 사카도 고등학교, 도쿄대학교를 방문했다. 학교별로 학교를 소개하는 발표를 들었고 학교 내부를 재학생들과 함께 탐방하는 시간도 가졌다. 둘째 날 방문한 교토의 동지사 대학교에서는 학교를 둘러보다 이곳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윤동주, 정지용 시인의 시비를 찾아 짧은 묵념을 했다. 넷째 날 방문한 사카도 고등학교에서는 재학생들과 가플리언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가 준비한 발표와 장기자랑 시간을 가진 후, 학생들과 함께 사카도 고등학교의 수업에 참여하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헤어짐을 아쉬워하여 SNS를 이용해 연락을 이어가는 친구들이 많았다. 다섯째 날 방문한 도쿄대학교에서는 학교 건물 안을 둘러볼 수는 없었지만, 기념품을 파는 가게와 고풍스러운 건물을 배경으로 찍은 멋진 사진으로 그 아쉬움을 달랬다.

설레는 마음을 품고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첫째 날 일정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간 곳은 '오사카성'으로 그 웅장한 모습은 모두의 입을 벌여지게 했다. 예상치 못한 무더운 날씨였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오사카성의 아름다움을 두 눈에 가득 담았다. 그다음에는 도톤보리에 가서 자유롭게 관광을 했다. '돈키호테'에서 쇼핑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도톤보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글리코맨'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친구들끼리 먹고 싶은 맛집에 찾아가 저녁을 사 먹을 수 있어서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영어, 혹은 일본어 실력을 발휘하며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첫째 날 지나치게 힘을 많이 쏟았던 탓인지,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을 때는 졸린 눈을 겨우 뜨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버스에 타자 언제 피곤했냐는 듯이 친구들과 조잘조잘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째 날에는 금각사와 청수사, 니넨자카, 산넨자카를 갔다. 금각사는 이름대로 길이 온통 금으로 돼 있는 사찰이었다. 반짝반짝한 금색이 정말 예뻐 설 새 없이 카메라 셔터만 눌렀다. 청수사는 높은 산과 우거진 수풀이 그야말로 절경이었다. 또, 니넨자카와 산넨자카는 일본의 문화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거리였다.

셋째 날에는 여행 전부터도 많이 언급됐던 영사관 특강을 들으러 갔다. 직접 영사관에 가서 좋은 강의를 들으니 색다르고 기억에도 더 오래 남을 것 같았다. 강의도 재밌게 해주셔서 지루할 틈이 없었다. 특강을 들은 후에는 나라사슴 공원에 갔다. 귀엽고 장난기 많은 사슴을 보며 먹이도 주고, 사진도 찍었다. 사실상 마지막 날이라 할 수 있는 다섯째 날에는 도쿄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사쿠사 관음사'를 방문했다. 그 거리에도 쇼핑할 수 있는 가게가 줄 서 있었는데, 마지막 날이다 보니 더 눈에 불을 켜며 사고 싶은 것들을 맘껏 샀다. 밤에는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예쁘게 빛나는 도쿄타워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여섯째 날에는 바로 공항에 갔다. 일본에서 있었던 시간이 즐거웠던 만큼 한국에 가는 것이 아쉬웠으나, 공항에서 마지막 기념사진을 남기며 일본 여행의 막을 내렸다.

예전의 GVT는 봉사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면,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GVT에서는 일본 현지 문화를 톡톡히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자유시간이 많았기에 평소 일본에 오면 가보고 싶었던 장소를 찾아가 볼 기회도 있어서 더 뜻깊었다. 많은 아이들이 덕분에 이 여행으로 'Global Vision'을 가슴에 품고 왔을 것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5박 6일이었으나 졸업할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해주었다. 여행 내내 우리의 안전과 즐거운 여행을 위해 힘써 주신 이기찬 선생님, 정혜윤 선생님 그리고 가이드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한다.

▶양세은, 정은솔 기자

GVT 대만 - 대만에서, 넓게 또 멀리



2018년 10월 8일, 2학기 1차 지필고사를 마친 15기 학생 29명은 대만으로 6일간의 GVT를 떠났다. 15기 학생들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비행기에 탑승했고, 15기의 여정에 김정아 선생님과 김정근 선생님이 함께하셨다. 올해부터 진행되는 GVT는 기존과는 달리 문화교류와 대학 탐방을 중점적으로 체험하는 만큼 15기 학생들은 다각도에서 대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 대학 탐방은 국립대만대학교와 국립청화대학교가 선정되어, 이곳으로의 캠퍼스 투어가 이루어졌다. 국립대만대학교는 대만 내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대학교로 여겨지며, 청화대학교는 과학 연구로 유명한 곳이다. 15기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립대만대학교에서는 지리학과에 재학 중인 경기외고 11기 영중과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은 해외 대학 진학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문화교류는 경기외고 학생들이 또래인 대만 학생들과 이루어졌다. 타이베이에서 고속열차를 2시간가량 타고 도착한 항구 도시 가오슝, 그곳의 문산고등학교를 방문한 15기 학생들은 대만 고등학생들과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문산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만의 전통 춤 등의 공연으로 경기외고 학생들을 환영했으며, 경기외고 학생들은 문산고등학교에서 오전에는 무술·서예 수업을, 오후에는 한국어·국제사회 수업을 각각 두 팀으로 나누어 청강할 시간을 가졌다. 점심 시간에는 현지 학생 아카펠라 팀의 공연과 경기외고 학생들의 K-Pop 춤, 노래 공연이 진행되어 서로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15기의 대만 GVT는 문화교류와 대학 탐방을 통해 본인의 시야를 넓히고, 타 문화를 이해하는 자세를 갖추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특히 대만 학생들과 15기 학생들이 처음에는 서로 어색함을 느꼈으나 K-Pop 가수, 드라마 등 공통된 관심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소통함으로써 15기 학생들이 문화는 언어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경기외고 학생들과 문산고등학교 학생들 간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이준혁, 양현진 기자

2018 제5회 중국어 원어연극대회



제5회 중국어 원어연극대회가 11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다목적실에서 개최되었다. 연극은 1학년과 2학년 순서로 따로따로 진행되었으며 1학년, 2학년 가리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중국어 원어연극대회에 참가하였다.

연극은 한 조에 5인 이하로, 각자 팀이 개성 있고 자유롭게 7분 이내의 원고를 직접 작성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스마트 스쿨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예선은 각자 팀의 중국어 연극대회 원고를 통해 치루어졌다.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참가한 팀은 학년별 약 5팀으로 이들에게만 연극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 중국어 원어연극대회는 본선을 올랐던 팀들을 대상으로 학년별 20%를 시상하였다.

학생들은 별주부전, 홍내생이 도깨비 등 다양한 주제를 유창한 중국어와 뛰어난 연기 실력으로 연극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재미있는 원고와 연기를 통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1학년 우승자는 《熊貓列傳》이라는 주제로 연극을 진행한 황승훈 학생, 유승우 학생, 송정우 학생, 정수민 학생, 노희승 학생이었다. 그리고 2학년 우승자는 《show me the 梦想》이라는 주제로 연극을 한 이세연 학생, 강채연 학생, 김서현 학생, 이해인 학생, 호재영 학생이었다.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중국어 원어연극대회라는 행사를 진행하여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에 대해 심층적으로 익힐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최서현 기자

가플리안의 합성이 가득했던, 체육대회



체육대회라고 하면 가플리안에게 가장 설레고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다. 2018년 5월 25일 경기 외고의 1학기 중 가장 큰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체육대회는 퍼레이드, 축구, 방어피구, 발야구, 농구, 피구, 단체 줄넘기, 전략 줄다리기, 이어달리기로 구성되었다. 체육대회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 중 하나는 단연 과별 티셔츠이다. 영중과는 파란색 축구 유니폼 과티, 영일과는 아이언맨 무늬를 넣은 빨간색 과티, 중어과는 가운데 check가 포인트인 검은색 과티, 그리고 일어과는 일본의 특징을 살린 하얀색 과티를 준비하였다. 각 과별로 선정한 색깔에 맞는 특색 있는 과티는 각 과별 퍼레이드 때 더욱 즐거움을 더하였다.

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는 과별 퍼레이드였다. 각 과별로 선정한 과티를 입고 2-3주 전부터 연습해온 퍼레이드를 뽐내었다. 그 후에는 각 학년별 과경기가 시작되었다. 체육대회를 하기 3주 전부터 점심, 저녁, 간식시간에 걸쳐 진행된 예선에서 통과하여 본선에 올라온 과들의 결승전이 진행되었다.

축구와 농구는 남학생, 피구와 발야구는 여학생,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출전하는 방어피구의 결승전이 진행되었다. 그 후에 진행된 경기는 단체 줄넘기와 전략 줄다리기 경기였다. 이 경기들은 각 과의 모든 학생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경기로 과별 단합심과 협동심을 보여줄 수 있었다. 마지막 경기는 체육대회의 꽃, 이어달리기였다. 이어달리기를 통해 등수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치열하게 경기에 임했다. 학생들은 정정당당하게 경기규칙을 준수하며 모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였다.

경기외고 학생들은 이날 만큼은 외고 학생의 이름을 버린 만큼 뛰어난 운동실력을 보여주었다. 모든 학생들이 매 순간 열심히 참여하였고, 한끗 차이로 승부가 갈리기도 하였지만 학생들은 모든 경기에서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었다. 최종 결과는 14기 우승은 일어과, 15기 우승은 중어과에게만 겨지며 체육대회가 마무리 되었다.

▶원예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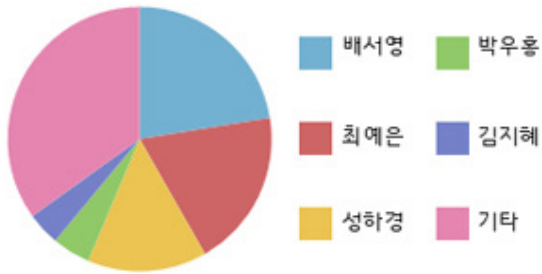
15기의 피 땀 눈물이 담긴 태권도 발표회에 가다.



4월 20일, 15기 학생 전체가 태권도 발표대회에 참가하였다. 경기외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희대학교의 태권도 학과 학생들도 화려하고 절도 있게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었다. G카드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원하여 태권도 시범단으로도 참가하였다. 이들은 태권도 발표 대회에서 고난도의 태권도 동작을 선보이기 위해 ASG4 시간 마다 연습에 몰두하였다. 15기 학생 전체는 발표 대회 준비를 위해 3월 12일부터 주말포함 총 40일 동안 모두 새벽 6시에 기상방송을 듣고 기상하여 태권도복을 단정하게 착용하고 6시 20분까지 체육관으로 집합하였다. 준비운동으로 시작해서 발차기, 지르기 등 태권도 기본동작을 배우며 6시 40분까지 20분간 알차게 운동을 진행하였다. 아침 운동을 주도해서 이끌어간 장도영 사감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체력 단련과 더불어 아침에 운동을 함으로써 정신이 맑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로써 자연스럽게 생체 리듬을 유지할 수 있어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침 운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좋은 취지로 아침 운동이 실시되었지만, 아침 운동은 도리어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바로 수행평가, 혹은 다른 과제로 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학생들이 피로해진 상태에서 새벽부터 기상함으로 인해 수업 시간에 졸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 학생들은 태권도복을 갈아입는 것이 귀찮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비록 힘들었을지라도 두 번 미만의 결석생에게는 상장을 수여하였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 아침 일찍부터 아침운동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을 것이다. ▶박지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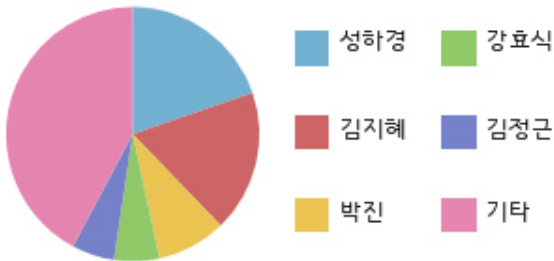
앙케트1

매력만점 경기외고 선생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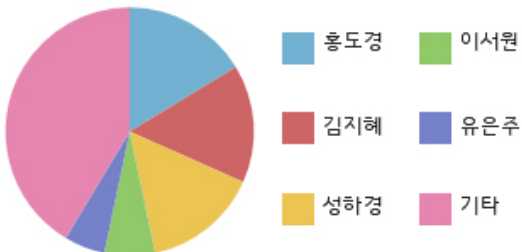
1. 당장 교복입고 등교해도 될 것 같은 선생님

당장 교복입고 등교해도 아무런 문제없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던 선생님은 누구였을까?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해본 결과 약 22%의 득표율로 배서영 선생님이 1위를 차지하셨다. 처음 학교에 오셨던 해 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과 학생 못지않은 동안 외모로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배서영 선생님께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뒤를 이어, 미세한 차이로 최예은 선생님과 성하경 선생님이 각각 19%와 14%로 2등과 3등 차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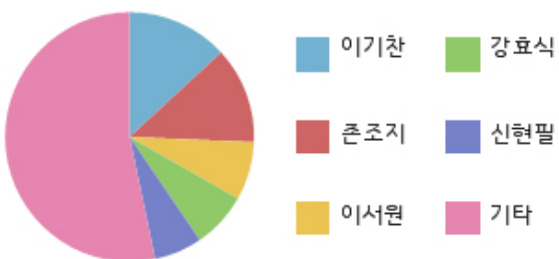
2. 앗, 선생님도? 매점에서 제일 많이 마주친 선생님

경기외고인의 군것질, 때로는 밤까지도 책임져주는 매점. 학생들뿐만 아닌 선생님들도 자주 이용해서 매점에서 자주 마주치곤 한다. 그중 가장 학생들이 많이 마주쳤던 선생님은 누구였을까? 1등은 20%로 성하경 선생님이 차지하셨다. 2018년에 새로 오신 성하경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매점에서 마주치면 팬스레 반갑기도 하다. 간소한 차이로 19%로 김지혜 선생님이 이름을 올렸다. 때때로 매점에서 마주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주시는 경우도 있는 만큼 교실 밖에서 마주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사이를 좁히는 창구의 역할도 하는 매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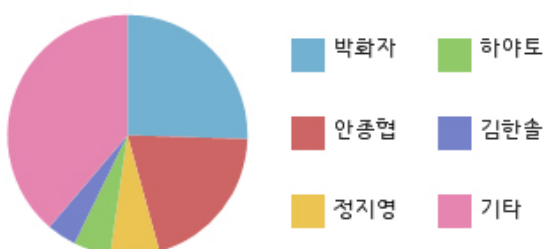
3. 프로필 사진 가장 자주 바꿀 것 같은 선생님

많은 경외인들이 하고 있는 SNS. 하지만 SNS 프로필 사진은 학생들만의 것이 아닌 사실. 투표를 통해 가장 자주 SNS 프로필 사진을 바꾸실 것 같은 선생님을 조사해봤다. 1위는 16%로 홍도경 선생님이 이름을 올렸다. 항상 예쁘게 꾸미고 오시는 모습이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 2위는 약 15%로 김지혜 선생님, 3위도 약 14%로 성하경 선생님이 차지해 선생님들 간의 경합이 가장 치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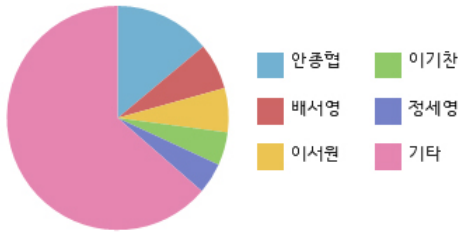
4. 평소 가장 흥이 많아 보이는 선생님

밋밋한 학교생활, 가장 흥 넘치는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선생님은 누구실까. 1위는 13%로 이기찬 선생님이 차지하셨다. '옹알스'공원에서 무대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셨던 것만큼 항상 활기 넘치시는 모습으로 보는 사람까지 흥이 날 정도다. 2위는 9%로 John 선생님이었는데, 수업시간에도 줄곧 노래를 흥얼거리시고 무대에서 학생들을 위해 기타와 보컬 공연을 하셨던 만큼 흥에 대한 남다른 기질을 보이신다. 3위는 7%로 이서원 선생님, 4,5위는 강효식, 신현필 선생님이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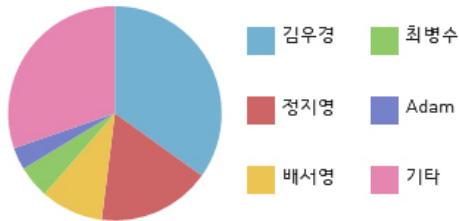
5. 카리스마 넘치는 선생님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학생들을 휘어잡는 선생님은 누구실까.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1위는 25%로 카리스마의 아이콘 박화자 선생님이, 2위는 20%로 안종협 선생님이 나타났다. 평소 수업시간 학생들을 취약파락하시며 문과 학생들의 정신을 빼놓는 카리스마 1대장으로 군림하신 박화자 선생님. 하지만 그런 모습 뒤에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하시며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하고 격정해주는 따뜻한 선생님의 모습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르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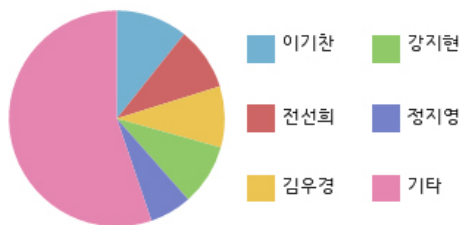
6. 수업이 가장 기다려지는 선생님

경기외고 시간표에 있는 수많은 수업들, 그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수업은 어떤 선생님의 수업일까. 조사해본 결과, 독보적으로 14%의 득표를 한 안종협 선생님이 1위에 등극하였다. 안종협 선생님의 수업은 정말로 새로운 지식을 쌓아간다는 느낌이기에 더욱 학생들의 큰 사랑을 받는 수업인 것 같다. 2위, 3위는 모두 약 6%의 득표로 각각 배서영 선생님, 이서원 선생님인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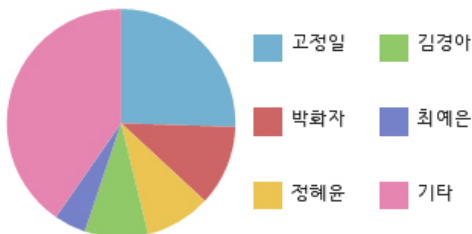
7. 전교 일등이었을 것 같은 선생님

학창 시절 가장 공부를 잘했을 것 같은 선생님은 누구실까? 이 질문에는 3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김우경 선생님이 1위를 거머쥐었다. 학력뿐만 아니라 수업 방식 등 여러 면을 봤을 때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2위에는 17%의 득표율로 14기 학생들을 쥐고 흔들던 정지영 선생님이, 3위에는 9%로 배서영 선생님이 이름을 올리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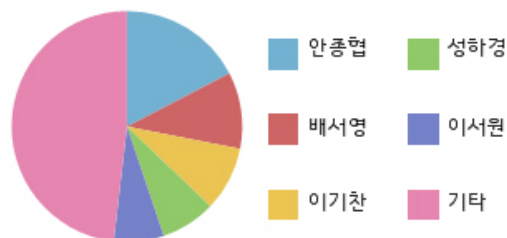
8. 만약 경기외고 면접을 본다면? 가장 잘 볼 것 같은 선생님

어느덧 경기외고 학생들에게 까마득한 추억이 된 경기외고 면접. 만약 선생님들이 그 면접에 참여하셨다면 어떤 선생님이 가장 잘 보셨을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로 1위에는 이기찬 선생님, 9%로 2위에는 전선희, 김우경, 강지현 선생님이, 6%로 3위는 정지영 선생님이 차지하였다. 이밖에 다른 선생님들 또한 비슷한 득표율을 보여 선생님들 간의 전체적인 편차가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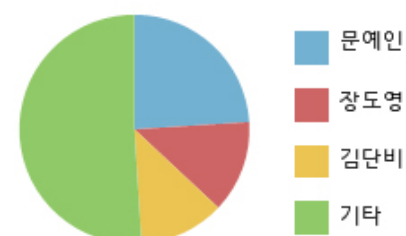
9. 상담 때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선생님

혼자 헤쳐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경기외고 생활, 그럴 때마다 찾는 탈출구 중 하나가 선생님과의 상담인데, 자신의 진로 고민 혹은 학교생활 중 어려운 점들에 관해 이야기하며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다. 그럼 학생들이 상담 시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느낀 선생님은 누구일까. 1위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25%의 학생들의 지지를 받으며 1등에 등극한 고정일 선생님이 나타났다. 2018년도부터 상담실에 상주하시며 많은 학생들의 상담을 맡고 계신 고정일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계시다. 경외인들, 앞으로 진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상담실을 자주 이용해보자. 이외에도 보건실 선생님, 강영중 이사장님 등이 등장했다.



10. 올해의 경기외고 슈퍼스타

2018년 한해, 경외인들이 뽑은 슈퍼스타는 누구였을까? 올해도 여김없이 슈퍼스타의 자리는 17%를 기록한 안종협 선생님께 돌아갔다. 독보적인 수업 스타일과 특유의 유머로 학생들의 호감을 끌어낸 것이 해가 지나도 슈퍼스타 자리를 내주지 않는 비결인 듯하다. 이후 2위부터는 차례로 배서영, 이기찬, 성하경, 이서원 선생님이 각각 10%, 9%, 7%, 5%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타고난 선생님을 비롯한 이병호 교장선생님, 행정실 유지현 선생님, 매점에서 일하시는 분, 박완 선생님 등이 기타로 있었다.



11. 경기외고의 사감 선생님들

전원 기숙사 생활이 원칙인 경기외고, 그런 만큼 학교생활에서 교과목 선생님들 못지않게 학생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서 계시는 분들이 바로 경기외고 생활관 선생님들이다. 생활관 선생님들에 대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선생님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와 그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다. 1등으로는 24%의 학생들에게 지지를 받은 문예인 선생님이, 2등에는 13%의 득표로 장도영 선생님이, 3등에는 12%로 김단비 선생님이 이름을 올리셨다. 그 이유에 대해 문예인 선생님은 "학생들의 이름을 잘 외워주시고 학생들을 친절하게 대해주셨다."라는 의견이, 장도영 선생님은 "태권도도 잘 가르쳐주시고 학생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신다."는 의견이, 마지막으로 김단비 선생님은 "친구 같은 선생님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 김준서, 정은솔 기자

한글날 행사에서 우리말 사랑을 되새기다.



제 572돌을 맞는 한글날을 기념해서 교내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2가지 부문인 '제11회 우리말 겨루기 대회'와 '시 번역 대회'로 나뉘었다.

'제11회 우리말 겨루기'는 본교 강당에서 10월 15일 월요일 8교시에 개최되었다. 스마트스쿨을 통해 신청한 선착순 참가 신청자 100명 중 끝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1인을 경기외고 우리말 달인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참가를 하게 된 학생들은 행사 전 스마트스쿨에 탑재된 출제 범위를 보고 대회 준비를 하였다. 출제는 국립 국어원의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에서 이루어 졌다. 시상 대상자는 참가자 100명 중 20% 상위 20명이었다. 패자 부활전 등을 통한 치열한 접전 끝에 '제 11회 우리말 겨루기'의 우리말 달인으로는 15기 중어과 양현진 학생이 선정되었다.

또한 '시 번역 대회'는 우리 시는 영시로, 영시는 우리말로 번역하는 행사이다. 한국 문학의 우수성을 드높이고, 유려한 우리말의 필체로 표현한다는 것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한국 시 번역 부문에서 번역해야 할 시로는 박재상의 '울음이 타는 가을 강'과 최영미의 '선운사에서'가 있었고, 영시 번역 부문에서 번역해야 할 시로는 Robert Frost의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과 A. E. Housman의 <To an Athlete Dying Young>이 있었다. 우리말을 사랑하는 많은 학생들이 시 번역에 참가하였고 다양한 학생들이 번역계의 새로운 별로 떠올랐다.

우리말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우리말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우리말만의 매력에 대해 알 수 있는 행사였다. 또한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한글날에 이러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한글만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 최서현 기자

경기외고 속 나만의 힐링 공간 찾기!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이하 경기외고)의 특성상 학생들은 고정된 일과표에 따라 움직인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은 기숙사,

교실, 급식실, 자습실을 오가며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확립하며 시간을 관리하는 것에는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체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스트레스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학교 생활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외고 속 자신만의 '힐링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학생들이 추천한 경기외고만의 힐링 타임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방법은 이동자습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다. 경기외고의 오후 자습 규정은 교실 혹은 자습실에서만 자습이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생활관 행정실에 개별적으로 이동 자습 신청서를 제출·승인, 코이노니아, 음악실 등에서의 자습도 허용된다. 매일 교실과 자습실에서만 자습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학습에 집중이 되지 않는 날에는 이동자습을 신청하여 생활 공간을 잠시 바꾸어줄 수 있다. 단, 이동자습을 신청할 시에는 오후 3시 이후부터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강당, 체력단련실, 가플그라운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경기외고에서는 친구와 함께 운동장의 트랙을 따라 걷는 모습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이에 비해 강당, 체력단련실, 가플그라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현저히 적다. 강당에 구비된 여러 가지 체육 도구로 배드민턴, 탁구, 농구, 줄넘기 등을 할 수 있으며, 아침시간 혹은 간식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것 또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봉암홀 1층에 위치한 체력 단련실과 가플 그라운드 풋살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하면 즐거움 뿐만 아니라 체력관리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글로벌 홀에 위치한 GAFL Library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IB 학생들의 학습 공간인 글로벌 홀은 국내반 학생들이 생활하는 메인 홀과 교내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IB학생들에 비해 국내반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낮다. 경기외고의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컬러링북, 그림 작품, 신문과 우수 논문집 등 다양한 활동과 읽기가 가능하다. 또한 편안한 쇼파와 인형들, 친구들과 함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원형 테이블, 항상 웃는 얼굴의 친절하신 원어민 사서 선생님까지 학생들을 맞이한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 생활의 스트레스를 잠시 잊고 좋아하는 분야의 독서와 토론을 마음껏 즐겨보는 것 역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경기외고에서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은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소중한 추억이 되기도 할 것이고, 힘든 수험생활이 되기도 할 것이다. 학생들이 긍정적인 사고와 넓은 시야로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고, 이를 학습 시간과 스스로 조율해 나아간다면 졸업 후 되돌아보는 경기외고가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 양제니 기자

수능 날 경기외고의 모습 함께 한 시간을 보내며

수능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연기되었던 2018학년도 수능을 뒤로 하고 어느새 2019학년도 수능 날이 다가왔다. 다행히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에 수험생들은 고사장으로 떠났다. 아침에 기숙사 1층에서부터 시작된 1, 2학년 학생들의 수능 응원과 함성은 학교 후문까지 이어졌다. 학교 후문에서는 학생들과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과 생활관 행정실, 그리고 행정실 선생님들도 함께 응원했다. 고사장으로 떠나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간 선배들에게 양 옆으로 길을 터주었고, 계단 쪽에서는 따뜻한 차도 함께 제공했다.

수능을 위해 준비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2년의 시간 중,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3년을 경기외고에서 보낸 3학년 선배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응원을 보내면서도, 그들의 곁을 지키고 함께 해 온 주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급식실 최은미 영양사님과 13기 학생의 한 학부모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번 살펴보자.

급식실 최은미 영양사님과 인터뷰



Q. 보통 수능 도시락은 어떤 기준으로 구성하시나요?

A.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메뉴와 영양가. 그리고 먹을 때 속이 편한지에 대해 고려하며 도시락을 준비하였습니다.

Q. 수능 날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직접 건네 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A. 복잡한 마음이지요... 저도 수능을 겪어봤기 때문에 친구들의 마음을 다 아니까 괜히 울컥하기도 하고, 공감되고... 힘들 것 같으니 위로도 많이 해주고 싶죠. 옛날에는 도시락 받다가운 친구도 있어서 그 후로는 일부러 애들한테 더 밝게 대하기도 하고요.

Q. 도시락 관련해서, 이번 수능 도시락에서 이전과 바뀐 부분이 있나요?

A. 원래는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고민해서 개인별로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수능 당일 날 뚜껑을 찾는 게 일이 됐고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모든 학생들의 도시락과 예코백을 동일한 디자인으로 통일 시켰어요.

Q. 올해 3학년 선배들의 1학년 시절부터 함께 봐 오셨을 텐데, 기분이 어떠세요?

A. 1학년 때는 정말 막내 같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철 없이 막 와가지고 장난치고, 말썽 부리고 했는데 어느새 맏이들이 되어있더라고요. 어느새 많이 자랐고, 성숙해졌고.....

Q. 수능 날 아침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네. 저희가 도시락 통을 학생들로부터 수거하면, 기숙사 한 방에 넣어놓고, 잠금장치를 걸어놔요. 그리고 수능 날 아침에 꺼내서 반찬들을 담고, 퇴식구 쪽에서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건네는데 한 아이의 도시락 통이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름을 안 적고 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 도시락 통을 찾고 '널 찾았다!' 했죠. 사실 수능 날 아침에는 아이들이 특히 예민해 있을 텐데 시작부터 어그러지면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시락 하나 놓을 때도 엄청 신경 써요. 누구 도시락 아래다가 놓는 일도 없게 하고..... 그만큼 수능이 저희도 긴장하게 만들죠.

Q. 앞으로의 계획은?

A. 이제부터 또 메뉴 입력을 하고, 발주를 하고, 설 시간이 없죠.

Q.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우리는 메뉴를 짜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려요. 우리 입장에서 매점 가서 라면을 먹지 않아도 되는 메뉴를 준비해주고 싶지만, 사실 몸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우리 몫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메뉴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는데, 메뉴가 맛있냐 없냐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속상하긴 하죠. 영양사라는 일이 특히 학교에선 고된 것 같지만 보람차기도 해요. 가끔 말썽 부리고 속상하게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귀여워요!

교문 앞에서 응원하고 계시던 13기 학생의 학부모님과의 인터뷰



Q. 오늘 몇 시에 학교에 오셨어요?

A. 도시락 봉사가 있어서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1, 2학년 후배 엄마들과 3학년 수험생 도시락을 함께 준비해서 반찬 싸고 도와주는 거죠.

Q. 수험생 자식을 둔 부모로서 어떤 기분이 드세요?

A. 3년이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1학년 끝났나 하면 2학년이 끝나있고, 모든 부모들이 기도하는 마음이지요. 안쓰럽고, 잔하고, 오늘 하루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쥐어짜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죠.

Q. 오늘 수능 끝나고 자녀분이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A. 여행도 가고 싶고, 좀 쉬고, 애기도 하고 싶죠. 사실은 수능을 치르면서 대학 원서를 쓰기도 했지만, 점수에 맞춰 지원을 한 거니 진로를 딱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대학에 무슨 과를 들어간 걸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얘기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Q. 곧 3학년이 되는 14기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처음부터 조바심 내다보면 부모들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어요.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3학년이 되면 조금씩 줄 수도 있는데 조금씩 하지 말고 천천히 스케줄대로 해요. 그리고 3학년 돼서 성적이 올라간 애들이 있는데, 대부분 엄마랑 학생이 천천히 침착하게 진행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듣게 될 얘기가 많을 텐데 조바심 내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대로 해요.

역대 수능 중 가장 낮은 1등급 컷이 나온 국어 영역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수능 국어는 말 그대로 수험생들에게 '멘탈 붕괴'를 안겨주었다. 수능 1교시부터 익숙하지 않은 신유형과 어려운 문학 지문을 접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황하였고, 이 때문에 그 다음 교시의 시험에 영향을 미쳐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았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따라 출제되는 마지막 수능인 2020학년도 수능에는 사상 최대 수의 N수생들이 시험에 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2020학년도 수능의 난이도 또한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확실한 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나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꼼꼼히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 밖에 없다. 수험생 모두 노력한 만큼 거두길.

학교 인쇄기에 대한 고찰

우리 학교의 인쇄기는 현재 본관 1층 매점 앞과 본관의 각종 엘리베이터 구역에 배치되어 있다. 학생들은 수행평가, 대회, 혹은 다른 용도로 매우 빈번하게 인쇄기를 사용하고 있다. 때로는 그 용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쇄기에 사람이 운집하는 경우도 많은데 주로 수행평가나 대회의 기한을 지키기 위해 학생들은 필사적으로 인쇄기의 우선권을 차지하려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인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말짱 도루묵이다. 사실 최근 들어 인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면 학생들은 1층부터 5층까지 인쇄기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모든 인쇄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인쇄를 못하기도 한다. 인쇄기가 모두 작동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마지막 방법으로 생활관 행정실에 찾아가 부탁하기도 하지만 모두의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꽤 골치 아픈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인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인쇄기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쇄기의 시스템적 고장을 다루는 입장과 인쇄기를 사용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인쇄기의 시스템적 고장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복사카드의 문제, 인쇄기의 잉크 및 토너 부족, 종이 걸림 등이 주된 원인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인쇄기의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쇄기에는 그것의 해결책으로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전화번호에 실제로 전화해본 사람이 많진 않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인쇄기가 고쳐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관 행정실의 관계자가 오기도 하지만 인쇄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니 우리에게 인쇄기의 전화번호는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인쇄기를 제공하는 사람과 인쇄기를 관리하는 업체의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인쇄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주체가 학생인 경우도 있다. 인쇄기가 작동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종이부족이다. 채워져 있는 종이가 없어질 이유는 인쇄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종이 칸에 채워져야 할 종이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종이이니 누구의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종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질책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인쇄기에 있는 종이의 용도는 인쇄를 하기 위함이고 그 인쇄를 하지 못하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아직도 인쇄기의 문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인쇄기가 고장난다면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만약 누군가가 종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그것을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장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면 자주 일어나는 종이 부족문제는 서로를 배려하는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영범 기자

없어진 15기의 자습실, 독일까 독일까

올해 입학한 15기 학생들은 14기, 13기 학생 때보다 달라진 점이 많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자습실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교육청 지침에 따라 선택교과실, 과학실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1학년 자습실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고 한다. 이에 따른 학생들의 불만은 학기 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학습권 침해이다.' '공지해주지 않았다.' 등의 의견을 내며 15기를 위한 자습실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의 요구에도 현재까지 1학년을 위한 자습실은 생기지 않았다. 그렇지만, 4층에 위치한 선택교과실과 사회과교실, 2층에 있는 영어과 교무실을 자습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학급별로 정해진 인원만큼만 각 자습실을 사용할 수 있다. 15기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 및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한 결과이다. 현재 선택교과실 1에는 학급별 2명, 선택교과실 2에는 학급별 3명, 사회과교실에는 학급별 4명, 2층 영어과 교무실에는 학급별 3명이 자습을 할 수 있다. 이 인원 외의 학생들은 모두 교실에서 자습을 해야 하는데, 교실 자습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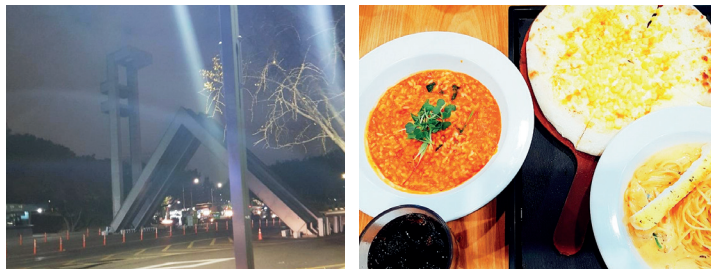
교실에서 자습을 하는 것의 장점에는 학생 통제 가능, 학습 분위기 형성 등이 있다. 먼저, 학생 통제 가능 면에서는 교실은 개방형 공간으로 복도를 지나가면서도 그 내부를 볼 수 있다. 자습 관리 선생님께서 복도를 돌아다니시며 자습을 하지 않고 핸드폰 또는 노트북을 하는 학생들을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학습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주변에서 학급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자신도 공부를 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습 시간에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습 분위기 형성은 기존의 자습실에서도 생기는 장점이다. 또한, 다른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조별 과제 등으로 인해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면 자신의 학업 의지가 떨어질 수도 있다. 교실 자습은 학급 친구들이 함께 자습을 한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교실을 열어 학생들이 자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인데, 인원수 제한이 있어 가고 싶은 학생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자습실이 없어지면서 학생들의 자습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다. 물론, 주변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들, 이미 만든 교실을 다시 허무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심지어는 현재 2학년 자습실도 없애고 새로운 교실을 만든다고 하였지만, 학생들의 반대로 2학년 자습실은 유지된 상태이다. 고등학교 3년동안 제대로 된 자습실이 없을 수도 있었던 15기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웠기에 2학년, 3학년 때 자습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학년에게는 자습실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현재 자습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생 단속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관 내에 또다른 자습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스스로 주변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특별한 공지 없이 자습실을 없앴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상황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존중해주는 경외외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지우 기자

가플리안 대학 가자!! 서울대학교 탐방



2018년 10월 30일 경기외고 2학년의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여러 가지 체험 및 학과 소개를 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제 곧 수능까지 1년 남은 2학년 학생들에게는 대학 탐방이 자신의 미래 학과와 진로를 결정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이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탐방 프로그램에 신청하였다. 참가비가 무료이고 프로그램 구성도 알차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였다. 지원한 많은 경기외고 재학생 2학년 중에서 각 반의 지원자를 신청 받아 추첨으로 소수의 학생들을 뽑았다. 추첨된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탐방이 2018년 10월 30일 15시부터 19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14시 50분에 출발하였다.

서울대학교 탐방을 위해 짜인 프로그램들은 총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 학생과 함께하는 학교 투어가 있다. 서울대학교 홍보단 사인의 안내를 바탕으로 공과대학, 자유 전공, 인문, 사회과학 건물을 관광하였다.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건물들만 관람하였다.

두 번째로 서울대학교의 역사와 학과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인은 1946년에 설립된 서울대의 역사를 개고기, 민족의 대학건설기, 대학종합화단계, 대학민주화실현기, 세계의 대학인 다섯 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학과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공과에 대한 설명이었지만 유익한 시간이었다.

세 번째로 서울대학교의 학교생활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아리는 여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지며 학술, 인권, 봉사, 종교, 문예, 체육, 공연, 예술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동아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고 학교의 특별한 장소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중 학교의 도서관은 국내 최대 규모이며 4000명까지 수용가능하며 다양한 종류의 책이 많이 구비되어있다고 한다. 학교 운동장은 올림픽 경기장 규모와 비슷할 정도로 크다.

네 번째로 서울대학교 학생과 직접 만나 궁금한 점을 묻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선배들은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정시를 준비한다고 해도 내신이 우선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섯 번째로 서울대학교 학생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였다. 파스타, 피자, 리조또로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였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서울대학교 탐방을 기념으로 제공하는 기념품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서울대학교 야잠을 받고 프로그램이 끝났다.

학생들은 서울대학교에 대한 몰랐던 정보를 알아보고 자신의 학과를 더 세심하게 고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탐방을 기점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더욱 뚜렷한 윤곽을 잡게 되었고 재미도 있는 새로운 경험을 가졌다고 한다.

▶이영범 기자

Speak Yourself,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018년 9월 24일 개최된 UNICEF(유엔아동기금) 청년 아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Generation Unlimited) 행사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참석하였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신탁통치 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UN 본회의로, 10세에서 24세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한 UN의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청년'으로 청년의 꿈, 취업, 폭력 근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러브 마이셀프(Love Myself) 캠페인을 진행해왔으며, 전세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반대하고 그들의 건강한 미래를 후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탄소년단은 이 캠페인을 통하여 2018년 12월 기준 약 18억 5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다. 최근 전세계 곳곳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영향력이 더해진 방탄소년단의 캠페인은 유엔 회의의 취지와 부합하였고, 방탄소년단이 유엔총회에 한국 가수 최초로 초청이 되어 7분간 연설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방탄소년단의 연설은 단순히 인기 있는 아티스트가 초대되어 화제성을 높인 점을 넘어, 청년들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목한 점에서 눈여겨볼 만 하다. 대표로 연설을 진행한 팀의 리더 RM(김남준)은 'Speak Yourself'라는 연설의 주제를 강조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 이야기한다. 실수와 잘못들조차 자신의 일부이며,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해 이름과 목소리를 찾으라고 청소년들을 격려한다. 이들의 메시지는 수많은 혼란 속에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였다.

지난해 9월 발매를 시작으로 방탄소년단이 이어오고 있는 앨범의 시리즈명 또한 'Love Yourself'라는 점에서 이번 유엔 연설의 주제가 그들이 전달해온 음악의 메시지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이라는 언어로 그들만의 위로, 격려, 희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온 방탄소년단의 서사를 알 수 있는 연설이었다. 연설의 메시지를 통하여 가플리안들 또한 희망을 전달받고 자신의 꿈, 이름,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제니 기자

한 번밖에 없는 겨울 어딘가로 떠나보는 건 어때?

한 해가 끝나고 다음 해가 다가옴을 알려주는 계절. 겨울. 쓸쓸하고 추운 이 계절을 보내는 방법은 모두 제각각일 것이다. 누군가는 너무 추워서 집 안에서 움적달작하며 보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새 학년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지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일 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계절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각종 축제들을 즐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국내에서 열리는 여러 겨울 축제들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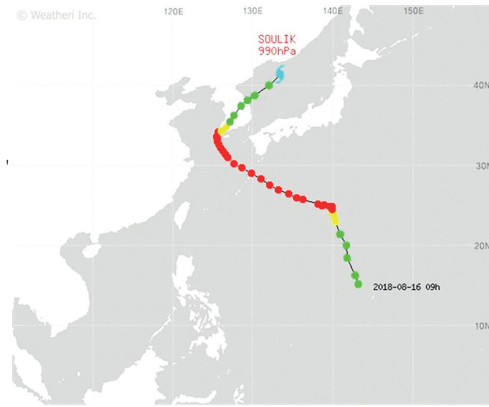
이 아름다운 다섯 곳 중 하나로 뽑힐 만큼 그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매년 새로운 테마를 선정해 그 테마에 걸맞은 얼음 조각들을 전시하는데 이번 2017~2018년도의 테마는 '겨울 눈꽃 동화'였다. 이외에도 눈썰매, 얼음 미끄럼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이색적인 프로그램은 알몸 마라톤이다. 추운 겨울, 온 몸을 뽐낼 때는 대신 옷을 벗고, 추위와 맞서 싸우며 마라톤을 하는 것이다. 정말 알몸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지 않거나 얇은 반팔 티와 바지만 입고 뛰는 것이니 오해는 하지 말자. 이용 요금은 각각 프로그램과 평일/주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사항은 대관령 눈꽃축제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033-335-3995에 전화해 알 수 있다.



하는 각종 조명들과 장식들을 보면서 들뜨고 설레는 마음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이다. 유엔헤비타트 산하 아시아도시연구소가 선정한 2014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한 만큼 부산 축제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 모습은 눈을 땔 수 없을 정도다. 축제가 열리는 광복로 정중앙에는 18M의 '중앙 스폿 대형 트리'가 있는데 트리 앞에는 조금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나는 크리스마스스타', 줄여서 '나는 클스다'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접수 마감을 비교적 일찍 하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하자. 이 뿐만 아니라 축제 거리에는 거리 악사, 화가,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니 걷는 내내 눈이 심심할 틈을 없을 것이다. 이번 겨울을 '잉여'스럽게 보내든 '빡빡'하게 보내든 아무래도 좋다.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이 시절의 겨울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보내고 싶다면 단 하루라도 좋으니 어딘가로 떠나보는 것은 어떤가?

▶이세연 기자

무서운 태풍, 국가태풍안전센터에서 대비하자.



제 19호 태풍 '솔릭'이 지난 2018년 08월 25시 03시를 기준으로 발발하며 우리나라를 덮쳐왔다. '솔릭'의 등장과 함께 태풍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은 널리 퍼졌고, 이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태풍과 관련된 검색어의 실시간 급상승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태풍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알맞은 대피 요령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국가태풍센터'는 '태풍 바로 알기', '태풍 살펴보기', '자료실', '새 소식', '센터 소개', '관련 사이트'로 이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태풍 위성 영상', '태풍 발생 현황(횡수)'에 관련된 정보도 올라와 있다. '태풍 바로 알기'에서는 태풍이란 무엇인지, 태풍의 이름의 의미, 없어진 태풍 이름, 알기 쉬운 태풍이야기를 담고 있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국민행동요령에서는 도시지역, 농촌-산간지역, 해안지역별로 나누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동 요령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역별로 취해야 하는 올바른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태풍 살펴보기'에서는 태풍 발생 현황, 연별 태풍 진로도, 순위로 보는 태풍, 태풍 예보, 과거 태풍영상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어 보다 심화된 태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료실'에는 과거 태풍 100년사, 관련 논문모음, 발간자료, 홍보자료가 담겨 있고, '센터소개'에서는 연혁, 예보업무, 연구업무, 국제협력업무 등을 다루고 있다. '국가태풍센터'를 통해 과거 태풍의 역사와 앞으로 태풍의 미래 전망까지 알아볼 수 있다.

실제로 '국가태풍센터'는 태풍 콩레이가 10월 05 일 오후 9시 서귀포 남남쪽 360km 부근 해상에 당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4 일 밤 10 시에 콩레이의 이동경로를 발표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가로등-신호등 및 고압전선 점검 금지,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 점검 등 국가태풍센터에서 국민행동요령을 직접 공개하였다.



언제 태풍이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태풍의 피해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가태풍센터'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태풍이 발생하였을 시 대처하는 알맞은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언제나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의 대처 방안에만 의지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가 차원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올바른 지식과 상황에 맞는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원예린 기자

아름다운 가게와의 푸른 만남!

태평양의 한가운데에는 쓰레기 섬이 있다. 쓰레기 섬은 해류를 따라 바다에 버려진 것들이 뭉쳐져 만들어진 거대한 쓰레기 더미이다. 지구는 현재 여러 환경오염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태평양의 쓰레기 섬까지 찾아볼 필요도 없이 당장 대한민국 의성군의 쓰레기 산 사례만 보아도 그 심각성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을 위해, 지구를 위해,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물건 재사용을 실천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프락'에서는 환경을 위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를 알아보았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아름다운 가게'의 이희경 매니저님께 감사를 표한다.



Q1. '아름다운 가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활동천사(자원활동가), 기증천사, 구매천사와 각 매장 당 1명의 활동가로 운영되고 있어요. 판매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아 매장에서 판매하고, 수익금 및 기부금은 지치고 힘든 이웃들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단체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또 나눔 사업, 공익 상품 사업, 뷰티폴 펠로우, 나눔 교육, 나눔 장터, 에코파티 메아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Q2. 정부가 올해 8월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책 시행 후 허점이 많아 고객, 직원, 영업주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아름다운 가게'도 현재 EARTH CAMPAIGN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구를 지키는 3가지 약속'으로 '하나,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합니다', '둘, 재사용을 생활화합니다', '셋, 사용 후엔 꼭 분리배출 합니다'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에 환경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정책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해 좀 더 대중적으로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Q3. '아름다운 가게'에서 하는 물건 재활용 등의 활동들이 지구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A. '아름다운 가게'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순환' 운동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물품들을 기증받아 다시 재사용함으로써, 물품의 수명을 연장하기도 하고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도 해요. 앞으로도 이런 운동을 끊임없이 확산시켜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이끈다면, 그런 운동들이 모여 지구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Q4.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무엇인가요?

A. 그동안 '희망 나누기'를 통해 많은 대상자들을 방문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가게'의 수익금이 누군가에게는 학원비, 생활비가 되기도 하고 체납됐던 월세로, 긴급했던 병원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대상자들이 그 지원을 계기로 건강을 되찾고 자존감을 회복해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좀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Q5. 저희 같은 학생들도 '아름다운가게'에서 봉사가 가능한가요?

A. '아름다운 가게'는 자원 활동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학생들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지만 매장별로 활동천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연락하여 신청을 해야 해요.

Q6.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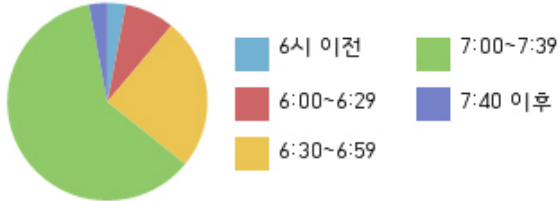
A.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필요하신 분들께 기증 물품의 평균 단가를 계산해 기부 물품 영수증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몇몇 분들은 '기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기증하고 기부 물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기도 해요. 단지 내 개인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큰 마음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기증이란 '내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있는 물품을 드린다'는 뜻이 있음을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오염은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작은 노력으로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문제가 환경오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재활용을 위해 분리 배출을 해야 한다는 것만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재활용품 분리 배출 기준에 따라 배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과자봉지, 라면봉지 등의 비닐류에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야 하며, 비닐 코팅된 책 표지, 노트의 스프링은 제거해 배출해야 한다.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간다면, 우리의 지구도 차츰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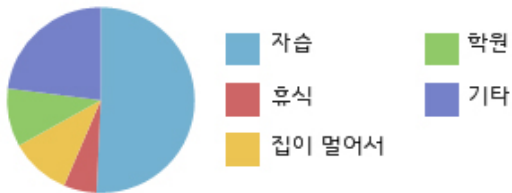
앙케트2

나의 경기외고 생활은?



1. 아침마다 경기외고인을 괴롭히는 시간

하루를 보내고 녹초가 된 경기외고인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시간이 있다... 바로 기상 시간. 일어나야 하는 걸 알면서도 몸은 말을 듣지 않고 침대와 한 몸이 되려 한다. 그렇다면 경기외고인의 평균 기상시간은 몇 시일까? 1위는 압도적으로 205표를 차지한 7:00~7:39분 사이였다. 뒤이어 6:30~6:59분이 83표로 2위, 그리고 6:00~6:29분이 27표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늦춰진 기상시간 덕분에 예전보다는 잠을 더 보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경기외고인, 잔류는 피해 갈 수 없는 필수코스?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이 입에 붙을 정도로 금요일만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잔류는 할 것이 못된다고 하면서도 잔류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잔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구열이 엄청난 경기외고인에게서는 당연하게도 ‘자습’이 50%로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와 대비되게 2위는 기타가 23%로 기록되었다. 사유는 ‘잔류를 해 본 적이 없다.’가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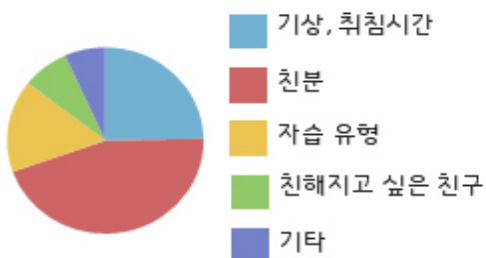
3.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것

경기외고 생활의 하나의 빛줄기! 도착했다는 문자만 뜨면 귀찮음을 감수하고 언덕을 내려가게 하는 바로 그것! 택배다. 택배가 출발했다는 문자가 오면 그 날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행복하고, 도착했다는 문자가 오면 설렘에 가슴이 부풀게 만드는 대단한 존재다. 과연 경기외고인이 가장 많이 시킨 택배는 무엇일까? 어쩌면 예상했을 결과 일수도 있는, 책과 문제집이 1위를 가져갔다. 그러나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 줄 아는 경기외고인! 기분전환을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의류가 보란 듯이 2위를 가져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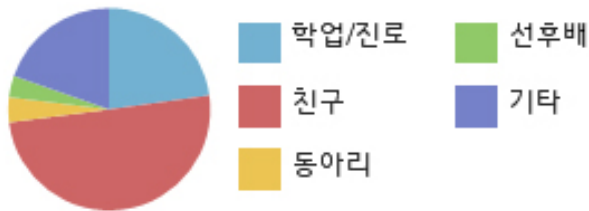
4. 친숙하면 안 되는데 왜인지 친숙하다... 기숙사 별점

경기외고에는 별점제도가 있다. 덕분에 체계 잡힌 시스템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한번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싶을 때가 있다. 그 성지가 바로 기숙사. 경기외고인이 하루 중에서 가장 긴장이 풀어지는, 제2의 집 같은 곳이다. 경기외고인은 무슨 이유로 기숙사 별점을 받게 될까? 1위는 첫 질문과 연관되는 지각 별점이었다. 달콤한 잠의 유혹은 정말 떨 수 없는 존재인 것 같다. 2위는 호실정리 별점이다. 항상 호실을 청결하게 써야하지만 귀찮음도 뒤따르기 마련이다. 어질러져 있는 호실을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께 죄송하면서도, 항상 깨끗이 치워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크다.



5. 경기외고인이 가장 고심하는, 룸메이트 선정

일과가 끝나고 방에 가면 항상 반겨주는 룸메이트들이 있다. 침대에 누우면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들을 털어놓기도 하고, 같이 화내기도 하는 시간이 경기외고인에게 금쪽같은 시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룸메이트 선정은 항상 민감하면서 걱정이 되는 주제이다. 만약 성격이 잘 안 맞는 친구와 룸메이트가 된다면, 가장 편해할 기숙사가 어느새 가장 불편한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마다 룸메이트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부분이 각자 다르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친한지 아닌지의 여부이다. 잇따라 2위로는 기상, 취침시간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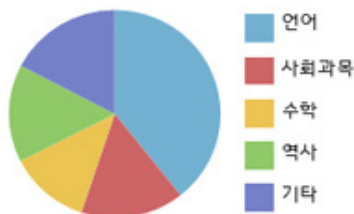
6. 일명 딤토킹... 어디까지 해 봤니?

“오늘 딤토킹 할 거 있어.”라는 말이 흔히 쓰일 정도로 진지하거나, 중요한 얘기를 할 때 항상 ‘딤토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딤토킹이 봇물 터지듯 나오는 곳은 다름 아닌 생활관이다. 룸메이트와 무언의 눈길을 주고받으면 그날이 바로 딤토킹의 날이다.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주제는 친구와 관련된 것이다. 기숙사 학교다 보니 함께 있는 날이 클수록 트러블도 자주 일어나기 일쑤이다. 2위를 차지한 건 학업, 진로에 관한 이야기였다. 경기외고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일로 많이 힘들겠지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이나마 걱정이 줄어들길 바란다.



7. 가장 선호하는 기숙사 침대자리

경기외고 기숙사에는 2층 침대 두 개가 나란히 붙어있다. 차례대로 A,B,C,D자리라고 이름이 써져있고 방 배정을 새로 받는 날이면 룸메이트 그 다음으로 바로 확인하는 부분이다. 저마다 잠이 잘 오는 자리, 선호하는 자리가 다를 텐데 경기외고인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는 어디일까? 콘셉트도 꼽을 수 있으며 다른 자리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하기도 딱 좋은 자리인 C가 1위를 가져갔다. 차례로 2위는 A, 3위는 D, 4위는 B순이다. 이외에도 바닥자리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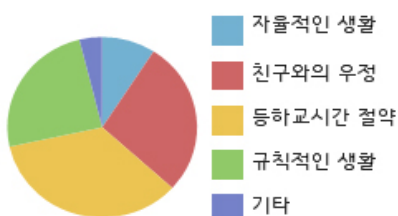
8. 한 번쯤은 겪어봤겠지, 기숙사 자습

시험기간이 되면 캐자, 화자, 심지어 샤자(샤워실 자습)까지, 가지각색의 자습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책상에 앉아서 정석대로 공부하는 것보다 기숙사에서 쪼그려서 공부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 그럼에도 시험기간 기숙사 자습은 피할 수 없는 관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공부하면서, 과연 가장 효율이 잘 나오는 과목은 무엇일까? 1위를 거머쥔 것은 언어과목(영어,국어,중국어,일본어)였고 2위는 기타항목으로, 노트북으로 하는 숙제, 단어시험, 혹은 기숙사에선 효율이 다 안 높다는 등의 답변이 올랐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9. 기숙사 가면 가장 먹고 싶어지는 음식

기숙사에서 음식을 반입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외고인은 주말마다 먹고 싶었던 음식은 싣고 먹고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에 들어오면 먹고 싶은 게 계속 떠오를 때가 있다. 기숙사에서 경기외고인이 가장 먹고 싶어지는 음식은 무엇일까? 공통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떡볶이가 압도적인 비율로 1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뚝 뚝 떨어지는 치킨, 피자, 삼겹살 그리고 족발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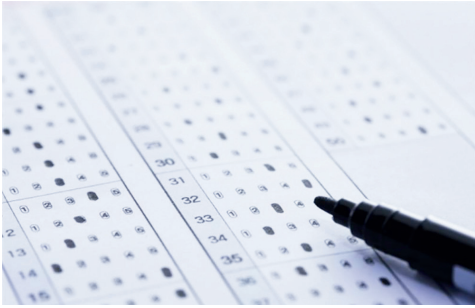


10. 기숙사 생활, 이걸 정말 자랑하고 싶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경기외고인. 때문에 본관보다 더 큰 곳이 기숙사이다. 그렇다면 경기외고 기숙사 생활의 장점은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등하교 시간 절약이 다른 것들과 월등한 차이를 보이며 1위에 앞장섰다. 중학교 시절에는 걸어가는 시간도 있다 보니 학교가는 것이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덕분에 걸어가는 시간도 확연히 줄고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친구와의 우정, 규칙적인 생활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 김준서, 정은솔 기자

열려버린 판도라의 상자,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한 쌍둥이 자매가 함께 전교 1등을 차지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러나 자매의 아버지가 해당 학교의 전임 교무부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자매의 성적이 급격히 향상됐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했다. 자매는 지난 1학기에는 각각 문·이과 전교 59등과 121등이었고 2학기에는 2등과 5등, 그리고 이번 1학기에는 전교 1등을 차지했다. 특히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A 씨는 시험지와 정답지를 검토 및 결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시험문제 유출 논란은 논란일 뿐이었으나 이번 15일 자매의 아버지인 A 씨가 자매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파악되었다. 이는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지난 학기 정기고사에 출제된

지문이 시험보다 일찍 쌍둥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 뿐만 아니라 쌍둥이 자매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학교 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입건된 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자매는 지난 6일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자매 중 1명이 조사실에서 점심을 먹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14일 두 번째 조사에서도 답답함을 호소하며 조사실 밖으로 나가 끝내 조사를 받지 못하고 귀가 조치되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다.

쌍둥이 자매의 시험문제 유출 사건은 마무리되어가는 중이나 여전히 다른 곳에서는 제2, 3의 쌍둥이 자매와 아버지가 존재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견이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인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내신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아 비밀비재할 것이고 수시 비리는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비리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입과 관련된 각종 비리는 정의롭게 노력한 이들의 성과를 빼앗고, 비리를 저지른 이들의 양심까지도 망가뜨린다. 이로 인해 각자가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꾸준히 내신과 수시 비리가 일어나고 밝혀지고 있는 지금, 한시라도 빨리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양세은 기자

혈연 비리, 과거에서 해답을 찾다

한 번쯤 '타인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인간이기에 타인의 불행에 무심코 기뻐한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외려 자연스럽다. 이는 어디까지나 무심코 행한 행동일 뿐 의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 죄의식은 느끼겠지만 이 또한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이다. 그러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근래 논란이 일고 있는 'S여고 쌍둥이'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고 노력하는 동급생 친구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 크나큰 불신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로써 수시 중심의 대입제도는 사실상 매우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건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는 곧 '고교 상피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피제'란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한 학교에 함께 있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상피제는 혈연관계에 의해 특정 가문이 인사를 독점하는 현상이 만연했던 조선시대 이전에도 시행되었으며 이는 '경국대전'에 '상피제의 적용과 범위'에 대해 상세히 지정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일정 범위 내 혈연관계의 인물들이 동일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게 제한함으로써 공정함을 최대로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세종실록 권 55'에 세종대왕은 '판단에 사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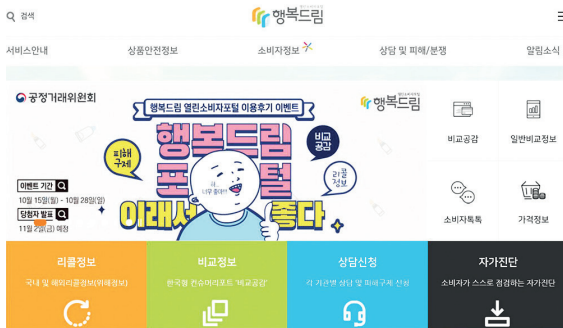
들어감을 경계하고 관직에서 더 나아가 과거 제도 운영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과거에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혈연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을 근절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엄격하고 세세한 규정들은 인사독점을 더 확실하게 척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듯 우리의 선조들이 엄격히 지키고자 했던 과거의 공정한 제도를 살펴보는 데에서 오늘날 혈연관계로 인해 공공연히 드러나는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조선시대에 전국의 모든 관직체계에 상피제를 적용하여 관리를 임용했듯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규정 또한 더욱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공정성이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고 혈연관계를 근절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대한민국 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는 앞으로 더욱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로 조사하고 공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제도 개선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평등한 사회 그리고 학벌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이다.

▶ 박지원기자

여기서 잠깐! 가플리안을 위한 스마트 경제 상식!

똑똑한 소비자 되는 방법, 스마트 컨슈머



현재 우리는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을 통해 더 쉽고 편리하게 제품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인 우리들은 더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골라 구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

15기 학생이라면 한 번은 접속해 보았을 '스마트컨슈머(www.consumer.go.kr)'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이다. 사이트 운영 시작 당시에는 '스마트컨슈머'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로 사용되고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전에 리콜 대상이었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상품들을 알리고,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비교공감'으로 들어가면 각 품목에 대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비교 및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브랜드 운동화를 선택하면 충격 흡수 정도, 유해물질 유무, 굴곡 정도, 각 다른 상태의 바닥에 미끄러짐 정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10가지의 브랜드를 평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조건에 충족하는 운동화는 D사 제품으로 이 결과를 본 소비자에게 다음 운동화를 고를 때 이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추천하였다. 또한, 운동화 선택 시 고려해야 하는 점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상품 비교뿐만 아니라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관련 법안을 알려주고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목록을 제공하여 피해 구제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스마트컨슈머'였던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은 단순한 상품 비교 및 피해 구제 방법 제공 서비스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중앙 부처, 지방 지치 단체, 공공 기관과 소비자 단체가 연계해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사이트와 차이가 있다. 정보의 바닷속에서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이상적인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열린 소비자 포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똑똑한 투자자 되는 방법, 청소년 인베스터

투자란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해 현재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 종류에는 대략적으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펀드 투자, 채권 투자 등이 있다. 요즘에는 투자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더불어 '청소년 투자자'의 존재도 같이 부상하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투자는 성인이 되어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투자하는데 있어서는 나이의 제약이 없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어서 투자를 하라고 많이 권유하는 이유는 청소년 때 투자를 한다면 올바르게 많은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청소년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투자하는데 있어서는 나이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주식 계좌 개설시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개설은 불가하며 부모님과 동행해 개설하거나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개설이 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미성년 자녀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하시는 부모님 신분증이 있다. 주식 계좌까지 개설을 끝마쳤다면 주식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뒤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 종류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첨부하자면 부동산 투자는 투자금이 많이 있어야 되며, 가장 큰 단점은 환금성이 매우 낮은 것이다. 주식 투자는 금융상품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을 수도 있지만 리스크도 가장 크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펀드 투자는 금융상품 중에서 수익률은 주식 다음으로 높을 수도 있지만 리스크도 주식 다음으로 크기 때문에 펀드 관련 서적을 탐독한 후 확신이 드실 때 투자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청소년이 투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펀드는 매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매매 타이밍에 따라 동일한 펀드라도 수익률은 많은 차이가 난다. 마지막으로 채권 투자는 금융상품 중에서 은행의 예금과 적금 다음으로 안전하지만, 수익률은 주식과 펀드보다는 낮은 편이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려면 우선 가장 대중적인 주식 투자를 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바로 실전 투자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모의투자부터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모의투자는 여러 증권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우선 '키움증권'을 예로 들어 보겠다. 키움증권에서 모의투자를 하기 위해서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참고로 모의투자는 가상의 사이버 머니로 거래를 하고 거래 수수료 역시 사이버 머니로 할 수 있다. 공인인증도 불필요하다. 키움 홈페이지에서 상시 모의투자 클릭 후 참가 신청을 한다. 최대 5억원까지 투자원금을 설정 가능하다. 또한 여러가지 투자 대회도 진행되고 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에 대한 이해와, 공부이다. 나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미 삼아 투자를 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보인다. 그러나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서 덜컥 달려들기만 하면 잃는 게 얻는 것보다 많을 뿐더러 투자에 대한 트라우마도 자아낼 수 있다. 여러가지 투자 방안을 함께 생각하면서 최대한 넓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이 투자를 하는 목적도 인지해 뒤야 한다. 성인들도 어려워하는 것이 투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필수는 아니더라도 처음엔 모의투자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이다. 또한 투자 지식을 완전히 흡수 한 후에야 바람직한 청소년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길 바란다.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페미니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

작년과 재작년이 다르듯, 시대의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다. 약 5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이 마주해야 했던 젠더 불평등 수치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안사람, 바깥 사람, '집안일은 여성이', 남존여비 사상, 법적 환경, 작은 것일지라도 여성들을 위한 제도나 인식 따위에는 불평등이 존재했다. 그 속에서 여성들이 소리쳤던 작은 목소리는 백색소음처럼 실감이 없다는 듯 치부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가장 큰 이슈는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스트'다. 여성의 인권 신장에 대한 노력과 성 평등 혹은 법적 성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회적 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큰 성과를 본 것은 '미투 운동'이다. 미투운동으로 본 페미니즘과 앞으로 개인의 그리고 사회의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미투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된 해시태그 운동이다. 즉, SNS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그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다. 성범죄를 당한 것이 부끄러워 쑥쑥 숨겨야 했던 인식의 틀을 깨고 범죄자를 단두대에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은 문단계, 연극계, 문화예술계, 정치계 등으로 번지며 화제가 되었다. 그 결과,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받기도 했으며, 존경받던 배우가 은퇴를 하는 등의 사건도 있었다. 긍정적인 효과였다. 여성이 성차별 혹은 성범죄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실례로 만연하던 여성혐오 발언 또한 매우 조심스러운 발언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던 페미니즘 운동도 변질을 맞이하게 된다. 거짓 미투, 마녀사냥 등으로 인한 본질 상실이 그것이다. 이것에 대한 토론은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으며 이는 성별 양극화 때문이었다. 여성우월주의, 남성혐오 등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 짓고, 대화보다는 갈등만 남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구도 속에 있는 우리는 늘 고민한다. 무엇이 옳은 방향일까 하고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함을 주장하는 페미니즘도 있지만 여성의 권위 회복을 우선시하는 레디컬 페미니즘도 존재한다. 이들은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구조를 타파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타파 과정에서 후자의 집단들은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짓고 반대로 남성 혐오를 조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쉽게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만든 것이 남성 우월주의 문화였으며 사회가 변하기 시작한 계기가 그들이기 때문이다. 홍대 누드 몰카 사건, 미투 운동, 탈코르셋 이슈 등 언론과 학교 등에서 페미니즘의 시시비비가 거론될 때마다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강타한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 걸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과제처럼 주어진 옳고 그름의 판단. 나는 가끔 이 선택의 길에서 혼돈을 느낀다. 그 속에서 수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그 틀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본질에만 집중하기보다 각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에게는 각각 다른 성격과 인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적으로 묶어낸 성별의 보편적 성격 및 특징은 오해와 허상만 남긴다. 사실 사람들은 남성, 여성 이렇게 두 가지 젠더로만 구성된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젠더로 쪼개져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성이라 혐오하고 여성이라 혐오하는 단순한 구조가 성립될 수는 없다. 고조된 성별 간의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별 프레임을 씌우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진단하는 것이 핵심적인 해결책이다.

▶이영범 기자

feminism.
feminism?
feminism!
feminism...

노동시간 단축, 개정되는 2018 근로기준법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있다. 장시간 노동은 낮은 행복 지수, 높은 자살률 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

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자 지난 7월 1일부터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발표한 후 실행 중이다.

개정안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1주 최대 근무시간 52시간 실시'이다.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고려하여 300인 이상인 기업에서 먼저 실행한 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2021년 7월 1일, 5인 이상의 사업장에까지 적용이 되면 약 13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실행 후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5명 대상) 결과, '주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이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에 대한 질문에 '잘된 일이다'라는 응답이 64.2%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 평가에 대한 이유로는 '일과 생활 균형으로 개인 생활 및 여가 활동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등이 있었다. 한편, 부정적 평가에 대한 이유로는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먼저, 노동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취미생활, 여가, 운동, 여행 등을 즐기며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정적 평가에서도 나타났듯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각종 수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돈 없는 저녁'이 되어 취미나 여가는 물론 기본적인 생활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근로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노동 강도가 극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중견기업 직장인은 "업무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분명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밖에 없거나 노동 강도가 극심해질 것"이라며 "인력 충원, 업무량 현실화 등 기업의 구조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부작용 등을 줄이고 제도가 조금 더 원활하게 시행 및 정착되기 위해서 아직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된 2018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각각의 기업들이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노동자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으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 최서현 기자

8시 등교제, 합리적인 생활 문화 정착하기

당겨진 기상시간과 취침시간. 올해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이하 경기외고)의 하루는 더 일찍 지나갔다. 이병호 교장 선생님이 취임하고 1년, 경기외고는 작년까지 시행되던 9시 등교제를 수능시간표에 맞춘다는 이유로 8시 등교제로 전환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이끌어내는데 유리하게 된 3학년에게는 희소식이었겠지만 상당히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화가 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들 모두 차츰 적응해 나가는 모양새다.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이 한 시간씩 당겨짐에 따라 퇴실은 기존 8시 20분에서 7시 20분으로, ASG 종료와 기숙사 소등시간은 각각 12시 30분에서 11시 30분, 1시에서 12시로 조정되었다. 생활이 한 시간 일찍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학기초 당장 학생들의 관심은 아침운동에 있었다. 비록 2,3학년 학생들은 자율에 맡겨지고 1학년 학생들 또한 후에는 아침운동 활동이 뜸해졌다고는 하지만, 학년 초 아침운동에 자율권이 없던 1학년 학생들은 6시에 기상하는 노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중학교 때부터 몇 년간 9시 등교에 익숙해져 있던 몸을 일찍 일어나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이에 더해 이미 작년 9시 등교 시간표에 익숙해져있던 학생들은 기숙사 소등시간과는 별개로 작년의 취침시간을 이어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소등시간과 기상시간은 조정되었지만 1년 동안 체화된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침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와 별개로 2학기에서 들어서면서 생활관 퇴실시간이 기존 20분에서 40분으로 변경된 것도 큰 학생들의 생활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 중의 하나다. 이제는 종종 볼 수 있는 8시 45에서 50분경 식당을 가득 메운 인파는 20분 퇴실이 진행되던 때에는 쉬이 볼 수 없던 광경이다. 이렇게 기상이 당겨짐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늦춰져 학생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경기외고는 2015년부터 8시 등교에서 9시 등교제로 전환했다. 수능 시간표와 맞지 않는 9시 등교라는 생활 패턴 때문에 작년까지 경기외고 학생들은 모의고사 전날만 일찍 기숙사에 들어가는 등의 불편함을 겪었다. 이런 방식은 3학년의 경우 수능시간표에 직접적으로 익숙해질 수 없을뿐더러 모의고사 전날 소등시간은 조정되는 것에 반하여 기상시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 시간표는 조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ASG 시간이 한두시간 정도 빠지는 현상이 일어났었다. 이에 더하여 수능 전 일주일만은 이런 생활방식이 지속되어 일주간 ASG 시간이 꾸준히 빠지곤 했었다. 심지어 사상초유의 수능 연기라는 사태까지 일어난 작년의 경우에는 2주 연속 해당 시간표가 적용되어 이런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았다.

비록 8시 등교제가 경기외고 외의 여타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경기외고 내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단편적으로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생활패턴을 찾아가며 점차 학생들은 적응하고 있고, 모의고사나 수능으로 인한 혼란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갑작스러웠겠지만 확실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도 많은 만큼 학생들이 합리적인 생활문화를 정착해 나가길 기대한다.

▶ 김준서 기자

지금 우리에게 건강한 소통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며 생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경기외고 학생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 게시판에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난식으로 쓴 청원이나 눈살이 찌푸러지는 내용의 청원이 우후죽순 게시판을 뒤덮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통의 활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창구를 이용하는 태도가 바르지 못하다면 건강한 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경기외고의 모습은 어떨까? 일명 '경외말'로 불리는 '경기외고 대신 말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기수마다 존재하는 '가플리언즈' 그룹이 바로 학생들 간 대표적인 소통의 창구일 것이다. 이 창구의 이용이 그동안 건강했는지를 묻는다면, 그렇다고 쉬이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정인을 공격하는 글이나, 익명성 뒤에 숨어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일이 꽤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익명 계정이 불려올 피해를 염려해 올해 가플리언즈 그룹에서 익명 계정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이전에는 없던 이례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올해의 사례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소통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단순한 소문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난을 공개적인 SNS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그 글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SNS를 보다 주의 깊게 생각한 뒤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학생들만이 건강한 소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소통은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 대한 불만과 건의사항의 수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많은 학생들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는 15기의 자습실 문제, 생활관 잠금시

설 설치 이후 방치 문제 등의 후속 조치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책 시행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설사 학생들의 의견대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어 경기외고 내의 건강한 소통을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시는 기자



늘어나는 불법촬영 범죄,

후보 시절 '몰카·리벤지 포르노 완전 근절'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성들은 불법 촬영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고 있을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사용했던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는 틀렸다. 복수라는 의미의 '리벤지'는 피해자의 잘못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또한 불법 촬영물은 음란 영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단어는 잘못이다. 대신에 '불법 촬영'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정부와 언론은 해당 용어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가 2011년 1,353건에서 지난해인 2017년은 6,470건을 기록, 6년 사이에 4.7배가량 증가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화장실에 똥려 있는 수많은 구멍과 나사들을 휴지로 막고 있고, 일각에서는 송곳이나 피티(틈새 등에 발라 메꾸는 충전재)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구멍과 나사를 찌르거나 막기도 한다.

그렇다면 불법 촬영 범죄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초소형 카메라, 위장용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하는 것이다. 초소형 카메라, 위장용 카메라 등 불법 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옛날부터 거론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변형 카메라 관리 부처를 마련하여 변형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제조·수입 판매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구매자가 사용 의도 등을 밝힌 문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는 '변형 카메라 사용허가제' 등 변형 카메라 판매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앱의 경우, '찰칵'하는 촬영음이 들리지 않아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힘들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디지털 성범죄의 85.5%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뤄지고 있다. 늘 휴대하고 있기에 언제 어디서나 찍을 수 있어 그만큼 위험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심지어 화면을 끈 것처럼 검은 화면이 보이는 상태로 촬영할 수 있는 앱, 인터넷 뉴스 기사 화면이 보이는 상태로 촬영할 수 있는 앱, 갤러리 숨김 폴더를 지원하는 앱, 촬영본이 휴대전화가 아닌 특정 서버로 전송되는 앱 등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2013년 정보통신기술협회가 무음 카메라를 없애고 모두 '찰칵' 소리가 나도록 표준을 제정했는데, 말 그대로 표준일 뿐 강제성이 없어서 현재까지 무음 카메라 앱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음 카메라 앱부터 규제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감시사회가 아닌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더 나아가 이러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불법 촬영은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위반이다. 그중 2항에서는 촬영 당시에는 합의하고 촬영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은 불법임을, 그리고 3항에서는 그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역시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불법 촬영과 유포가 형법상 범죄임이 특례법에 규정되어있음에도 그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불법 촬영으로 법정에 선 7446명 중 8.7%, 음란물 유포로 재판받은 1680명 중 1.8%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례법에 명시된 '5년 이하의 징역형'(1항 기준)이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성범죄 강력 처벌에 소극적인 사법부 관행의 연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특례법 14조의 한계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촬영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같은 범령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촬영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상 불법의 정도와 피해 확산의 신속성·위험성에 있어 서로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같은 조항 내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유포행위는 촬영행위와는 별도의 상향된 징역형으로 규제해야 한다. 또한, 불법 촬영 처벌 범위를 피해 가는,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유형도 제대로 규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제3자에게 보여준다거나, 불법 촬영 영상을 다른 기기로 재촬영하는 행위 등은 처벌이 어렵다. 또 14조 내용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라는 부분도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으로 인해 전신을 촬영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촬영분을 확대하거나, 크기를 조절해 자르는 등의 재편집이 손쉬워졌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14조에는 '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가 정확하게 명문화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가해자가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했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벌금형에 속하는 협박죄가 아닌 강력한 성범죄 처벌 법규로 처벌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 단기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공식화하고 영구화하여 직원들을 정규직화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 촬영과 유포는 특례법 14조의 개정만으로 근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다른 관련 법규들이 힘을 모아 불법 촬영물이 유통될 수 있는 모든 틈새를 막아주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방법과 유형은 점차 다양해질 것이다. 불법 촬영과 유포의 '방법'에 집중하기보다는, 제3자에게 유포되는 결과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법령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해야만 불법 촬영 피해자가 '동의 여부'나 '실제 유포 여부' 등에 의해 압박받지 않을 수 있으며, 가해자는 자비없이 처벌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카메라'라는 눈이 지켜보는 이른바 '감시사회'가 아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